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남가주교계연합, 제77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개최



남가주교계연합회가 주최한 제77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은 남가주교계 임원 및 목회자들 ©기독일보

남가주교계연합회(상임대표회장 신승훈 목사, 이하 남가주교연)가 제77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주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올해 광복절 연합예배는 엘에이카운티교협, 남가주 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등 교계 단체를 비롯해 LA 한인회와 민주 평통, LA총영사관 등 사회 기관에서도 참여해 남가주 지역 동포 사회의 화합과 도약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날 연합예배 설교자로는 본국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내정됐다. 소강석 목사는 광복절 연합예배에 이어 8월 15일(월)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진행되는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주관한다.

8월 14일(주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

전 10시부터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진행되는 남가주지역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할 예정이다.

신승훈 목사는 “남가주 교계연합예배를 통해 광복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세계 선교 대국인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교회가 부흥되고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사역들이 정상화되길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지용덕 목사는 “남가주 교회들과 한인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차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가주 교계 단체와 사회 기관이 한마음이 되어 교계를 비롯해 한인 이민 사회의 연합과 발전을 다지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가주교연은 남가주 지역 미자립 교회 100여 곳을 선정해 1천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출석교인 50명 이하의 교회 가운데 재정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일단 교회는 지원할 수 없다. 현재 4만여 달러가 약정되어 40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됐으며, 100교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가주교연은 지원서 접수와 선정을 위해 광복절 연합예배까지 마치고, 목회자 세미나 당일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승훈 목사는 “남가주 교계가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고, 교계의 부흥과 화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한다”며 “복음 전파의 선한 뜻을 위해 남가주 교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교계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이어 “우리 주위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놓인 교회들이 많다”며 “서로 돌보고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약정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복절 연합예배 및 미자립교회 지원에 관한 문의는 714)390-9197 이정현 목사에게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미국인 10명 중 6명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적 관용 감소”

미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적 관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지난 9월 미국 성인 1005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미국의 종교적 자유가 쇠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24%)은 강력히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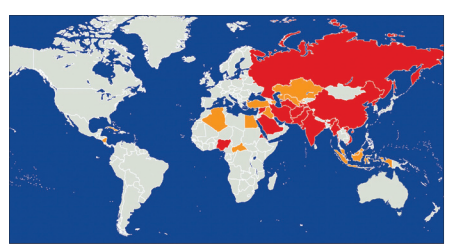
반면 미국인의 약 3명 중 1명(32%)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14%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미국인 10명 중 6명(59%)은 ‘오늘날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점점 더 편협함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24%)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18%는 ‘미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편협함이 증가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68%)과 백인 미국인(59%)은 타 인종(47%)보다 ‘기독교인이 직면한 편협함’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종교별로는 개신교(69%)와 가톨릭 신자(59%)가 ‘기독교인이 점점 더 편협함에 직면해 있다’는 데 가장 많이 동의했다. 타종교 응답자 역시도 2명 중 1명(53%) 이상이 동의했고, 무종교인은 41%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스콧 매킨코넬 라이프웨이 리서치 전문이



2022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연례 보고서에 실린 세계 지도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적색)’과 ‘특별감시국(주황색)’이 표시되어 있다. ©2022 USCIRF 연례 보고서

사는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 일부 집단이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덜한 사람들에게 비해 종교의 자유가 감소하는 것을 더욱 인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독교인은 자신이 받는 대우에 대해 지나치게 불평한다”라는 질문에 미국인의 약 절반(49%)은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인의 36%는 ‘그렇다’고 답했고, 15%는 ‘확실할 수 없다’고 했다.

성별로는 남성(40%)이 여성(32%)보다 ‘기독교인이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지나치게 불평한다’는 데 더 동의했다.

반면 무종교인(53%)은 개신교(27%)나 가톨릭 신자(34%)에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불평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업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2년 가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플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릴라아도 교수, D.Miss.
(플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판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가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가을 학기 접수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합격자 발표	2022년 8월 15일(월)

■ 가을학기 일정(10주)
2022년 9월 6일(화) - 11월 11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팬데믹 후 선교적 첫 과제, 예수 회복”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사무총장 조용중 목사)가 주최하는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개최됐다.

롬15:12을 주제성구로 ‘예수, 온 인류의 소망(Jesus, the Hope of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2016년 제8차 대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대회가 연기돼 왔었다.

대회가 6년 만에 개최된데다 팬데믹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에 대회 가운데 보고되는 선교지 현장의 상황도 크게 변화돼 있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이제 30~40대 장년층에 접어들어 MK세대들이 준비를 함께 했으며, 많은 미주한인 목회자들도 주제강의를 맡아 참여하는 등 대회구성에 있어서도 예년과 다른 참신한 시도들도 이어졌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4일동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 가운데 진행됐고, 규모 또한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것을 고려해 선교사원 3백여 명, 총 참석자는 1천 명으로 축소해서 진행됐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KWMC 대표의 장 이승중 목사는 ‘예수 회복, 세계선교(눅 2:41-50)’라는 제목으로 현재 세계선교에 있어 가장 시급한 요소는 바로 교회들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예수를 회복하는 것이라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일보

고 강조했다.

또 이 목사는 “한국교회도 또 30년 전통의 KWMC도 세계 선교를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동안 예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돼버렸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동력을 잃었다”면서 “팬데믹에 놀려졌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때가 온 것이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 방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MC 대표회장 강형민 선교사는 지난 6년간 선교지의 많은 변화들에 대해 보고했다. 강 선교사는 “현재 선교현장은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한다”면서 “선교사들 연령층이 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선교사들은 부족한 상황이 늘고 있다. 그 동안 세계 선교에 있어 미주한인교회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결코 헛되

지 않고 귀한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대회 가운데서는 총 12가지 영역에서 심층적인 주제별 발표도 이어졌다. 도시선교 오영섭 목사, 문화예술선교미디어 박종암 선교사, 교육 이경승 2세 선교사, 비즈니스미션 안창호 박사, 선교동원 김장생 선교사, 디아스포라 노규석 목사, 선교적 교회 양춘길 목사, 전방개척사역 정보애 선교사, 선교적공동체성경읽기 김응식 대표, 선교협력 이은무 선교사, 선교사자녀 김해구 박사, NGO와 국제기구 김휴성 선교사 등이 강의를 맡아 각각 이틀간 영역별로 강의를 진행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날인 14일 이번 대회의 주제와 대회 중에 토론했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한 ‘워싱턴 선언문(Washington Manifesto)’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선교 유산과 선교운동에 새 국면을 맞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급변하는 선교환경 속에서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새로운 선교환경에 적합한 전략의 연구개발이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확인하고(마 28:18-20, 행1:8),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속적 삶의 실천을 통하여(롬15:5, 고전11:1, 막 10:45, 눅9:23) 하나님 나라를 세우 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대원 기자

새생명선교회 재미 한인 대학생 100명, 총 15만 달러 장학금 지원



박희민 목사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미주 한인 대학생 및 신학대학원생 100명을 선발해 각 1천 5백 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7월 말 이메일과 새생명선교회 웹사이트(newlifemissionfdn.org) 또는 kcmusa.org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새생명선교회는 또 키르기스스탄의 케인(Kein)대학교(총장 신경희 목사, Seed 선교회 소속)에 1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민 목사는 “이번 가을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를 포함, 미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 신학생의 경우 대학원생까지 포함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 증명서(학부모 세금 보고서), 담임목사 추천서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UMC 106개 교회 “탈퇴 조건 불공정”...지역연회 고소

미국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UMC) 1백여 곳이 동성에 논쟁으로 인한 교단 탈퇴 조건이 공정치 못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연회를 고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총 106개 교회는 지난 14일 UMC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브래드포드 카운티의 제8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쟁점은 탈퇴 교회가 재산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 연회에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라고 CP는 전했다.

원고는 “지불방법이 앞서 언급한 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항상 상당하지만 협상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한 교단의 중앙규정인 UMC 장정의 ‘섹션 2548.2’를 인용해 우호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원고인 그레이스 연합감리교회(Grace United Methodist Church of Law-ty)는 “UMC가 1968년 설립되기 훨씬 전 재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문은 “연회는 그레이스 UMC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그레이스 UMC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재산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레이스 UMC는 연회가 존재하기 오래 전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해왔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UMC를 비롯한 교회들의 소송은 NCLL(National Center for Life & Liberty)가 맡았다. 조나단 베일리 NCLL CFO는 CP와의 인터뷰에서 “플로리다 연회가 요구하는 지불금은 불공평하고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베일리는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플로리

다 연회가 복음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106개 교회를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분리를 만드는데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들은 연회가 장정을 위반하고 2019년 총회에 요약된 대로 전통적 계획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데 좌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연회 대변인은 켄 카터 감독이 지역기구 회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CP에 보냈다. 카터 감독은 이 소송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우리는 교회들을 그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대신 그것을 거부했고 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서두르더라도 2019년 총회에서 정한 책임을 다하고, 다른 연합감리교회나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폄하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카터 감독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서로를 지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LA지역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

- 일시: 2022년 7월 31일(주일) 오후 3~7시
- 장소: 나침반교회(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 문의: Novo NK 총무 데이빗 김목사 T.(314)625-0404 novonkorea@gmail.com



주제 및 강사

통일선교와 복음의 능력_ 이빌립 선교사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북한선교_ 서예레미야 선교사
복음통일과 한인족 디아스포라_ 신영도 선교사
나그네의 마음, 그리고 탈북 청소년 사역의 필요_ 심양섭 목사
북한 땅의 회복과 부흥_ 한성민 선교사

통일소망 선교회 소개

통일소망선교회는 2009년 설립되어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초교파적 선교단체입니다. 통일 한반도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순종하여 먼저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 땅 선교와 북한교회 재건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의 기도, 사랑으로 탈북자 복음구출 양육 855명 총 1451명을 구출하였습니다. 북한 선교를 향한 한국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빌립선교사 복음소망선교회 대표 열방선교회 담임 탈북민 목사	 서예레미야 선교사 Novo NK 대표 통일소망선교회 미주 이사장	 신영도 선교사 통일소망선교회 해외선교국장	 심양섭 목사 남북사랑학교 교장	 한성민 선교사 통소선 사무총장 북한선교 중 중국 감독 30개월 수감
--	--	----------------------------------	-------------------------	--

남북 연합 신학생, 청년 일일 수련회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2022 8월 2일 오후 3~9시
장소: 나침반교회(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주최: 통일소망선교회, Novo North Korea
등록비: 무료, 간식 및 저녁식사 제공
등록 및 문의: Novo NK 총무 데이빗 김 목사
T. (314)625-0404
novonkorea@gmail.com

*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저녁 친교시간은 강사 및 사역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취약계층 위한 '복지선교 전문가' 양성

글로벌리더십 복지선교 석사과정 오픈

월드미션대학교가 글로벌리더십 석사과정에 복지선교 세부과정을 개설하고 2022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복지선교 세부과정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신학적, 선교적, 문화적으로 겸비된 리더십을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지선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된 전문 석사과정이다. 특히 교회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역에 비전을 두고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융합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본 과정을 통해 복지선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목회와 선교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춘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고 사역을 위한 기술과 지도력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리더십 복지선교 세부과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립고등교육국(BPPE)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기독교대학연합회, 신학대학원협의회 등의 정회원으로 졸업 후 세계 모든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하다. 또 한국 베데스다사회복지재단과 협약을 맺어, 사회복지와 선교사역이 협력과 확장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을학기 신(편)입생의 원서 접수 마감은 8월 15일이며, 학교 홈페이지(www.wmu.edu)에서 입학 서류를 다운받거나 입학처 전화 213-388-1000 또는 이메일 (admissions@wmu.edu), 혹은 이현아 교수(hyunalee@wmu.edu)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베데스다사회복지연구원 박종미 원장(010-6313-10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하는 월드미션대학교 글로벌리더십 복지선교 세부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WMU)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지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35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약 6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온라인과 온캠퍼스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00명의 재학생을 목표로 한인 이민국에 탁월한 전문인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신학대학원협의회(ATS)의 정회원으로 졸업 이후 본교는 물론 미국 내 모든 기독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 가능합니다.”

- 글로벌리더십 석사 '복지선교' 전공과정 (Social Work Concentration)은 어떤 과정입니까?

“현대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향한 전문적인 방법으로 복지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비영리 단체가 나서고, 또 작은 지체인 우리가 나서야 하기에 복지선교는 우리가 꼭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학문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전문 사역현장을 배경으로 복지선교적 안목을 키우고 실천기술을 함양하는 전문 석사과정 트랙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 선교사, 사모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로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복지선교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목회, 선교사역을 준비시키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춘 기술과 전략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의 베이스와



월드미션대학교가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 ©기독교일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복지선교적 관점을 개발하여 사역을 위한 기술과 지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 교수진과 주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취약계층 및 타문화권 사역, 사회복지 현장사역에 오랜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교수진으로 구성됩니다. 복지선교 분야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실천경험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글로벌 사회복지와 선교, 지역사회와 노인복지선교, 복지선교적 교회, 타문화권 복지선교전략, 다문화 사역, 사회복지경영과 리더십 등 복지선교 전공과목을 비롯해 신학과 성서과목, 영성과 리더십 학문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 입학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석사과정(Master Degree)이므로 정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학비나 제반 비용은 어떤가요?

“졸업 이수 학점은 39학점이며 학비는 학점 당 290달러입니다. 석사학위(목회학, 선교학 등)가 있다면 일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전문 사역현장에서 복지선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사역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비영리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장애인부서 사역, 선교 사역, 사회복지 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복지선교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졸업한 후에는 전문 복지선교 사역자로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실제적인 복지선교 사역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통일소망선교회 LA지역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 개최

LA지역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

주제 및 강사
 통일선교와 복음의 능력 | 이빌립 선교사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북한선교 | 서예레미야 선교사
 복음통일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 신영도 선교사
 나그네의 마음, 그리고 탈북 청소년 사역의 필요 | 심양섭 목사
 북한 땅의 회복과 부흥 | 한성민 선교사

통일소망 선교회 소개
 통일소망선교회는 2009년 설립되어 복음통일을 위하여 초교파적 선교단체입니다. 통일 한반도를 통하여 영원영 구원을 사역하는 한-미(아시아) 기독교 연합회 소속하여 영적 유-신 분야의 매우 상당 북한 땅 선교와 복음전도 권고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디아스포라 교역과 선교의 기도, 사명으로 탈북자 복음구원 양역 86598 총 1459명(중국어 9259)입니다. 북한선교를 향한 한국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다짐들이 되겠습니다.

이빌립 선교사 (통일선교회 대표)
서예레미야 선교사 (미국선교사)
신영도 선교사 (복음통일회)
심양섭 목사 (북한선교사)
한성민 선교사 (북한선교사)

7월 31일(주일) 오후 3시~7시, 나침반교회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립 선교사)가 7월 31일(주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북한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북한 선교의 실제적 방법과 사역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라 주목된다.

컨퍼런스 강사로는 이빌립 선교사, 서예레미야 선교사, 신영도 선교사, 심양섭 목사, 한

성민 선교사 등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나서 △통일선교와 복음의 능력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북한선교 △복음통일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마음, 그리고 탈북 청소년 사역의 필요 △북한 땅의 회복과 부흥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2009년 설립된 통일소망선교회는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초교파적 선교단체로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재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설립부터 지금까지 구출 또는 양육한 탈북자만도 1천5백여 명이 된다.

컨퍼런스 당일에는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북한 선교 사역자들과 간담회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컨퍼런스 다음날인 8월 1일(월) 오

후 6시30분에는 포도원교회 (담임 정영민 목사 22500 Avalon Blvd, Carson, CA 90745)에서 남가주 지역 북한선교 헌신자 모임이, 8월 2일(화) 오후 3시부터는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남북 연합 신학생·청년 일일수련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북한선교 헌신자 모임 및 남북 연합 신학생·청년 일일 수련회는 인원 제한으로 참가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문의는 데이빗 김 목사 전화 (314)625-0404 또는 이메일 novonkorea@gmail.com 으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북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북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강제복송 어부 사진, 탈북 후 중국서 겪던 일 떠올라”

‘北 어부 강제복송’ 사진 공개에 탈북 목회자들 격앙

통일부가 문재인 정권 시절 ‘탈북 어부 강제복송’ 사건 당시 선원 2인의 송환 과정에서 복송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12일 공개한 가운데, 이를 접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진에는 탈북 어부들의 ‘구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들은 판문점에서 안대가 벗겨진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바다에 머리를 찢으며 자해하고, 맨바닥에서 발버둥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북기총) 대표회장 김권능 목사는 “탈북 어부 강제복송 사건 당시에도 북기총에서 ‘악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냈었다”며 “이번에 사진을 보니 너무 심각하다. 탈북민들 중에는 중국에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경험 가진 분들이 많은데, 남한에서도 이런 모습을 접하니 너무 힘들다고 한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조만간 북기총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권능 목사는 “법과 질서를 말하시던 분들이 어찌 그렇게 법도 원칙도 없이 조치했는가”라며 “인도주의 원칙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눈을 싸맬 뿐 아니라 안대를 풀 때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북



통일부가 12일, ‘탈북선원 강제복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한으로 가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고 분노했다.

북기총 대표회장을 지냈던 강철호 목사(세터교회)도 “잘못 돼도 함참 잘못 된 것이다. 마침 TV로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노가 생기고 치가 떨린다”며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 차원이다. 그런데 이들의 강제복송 이후 북한 전역에서 ‘탈북할 사람들은 하라. 이제 한국 정부와 잘 연결돼 있어, (탈북해도) 다 돌려받는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

결국 자유를 열망하지 못하도록 동조한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강 목사는 “저뿐 아니라 탈북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가족·친척은 아니라도, 같은 사람 아닌가. 탈북민 단체장들 단독방에서도 난리다. 대한민국이 믿음만한 국가인가 하는 말까지 나온다”며 “전 정부는 범죄자라서 돌려보냈는데, 북한 측 주장일 뿐이다. 김책 지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왔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제 탈북민들이 북한 각 지역에서 왔고 내부와 다 소통하고 있어 속일 수 없다. 북한에서 송환을 위해 살인자 프레임에 씌

웠고, 전 정부는 북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믿고 보낸 것”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진보 사람들은 박정희·전두환이 독재자라고 비난하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비교가 되는가. 왜 이들은 비난하지 않고 저렇게 잘 대해주는가? 앞뒤가 다르다”며 “그들은 평화와 인권을 말하면서, 왜 북한 인권에는 저렇게 침묵할까. 전 세계에 저런 독재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대화하고 칭찬하고... 진보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성적 학대 성교육에 노출된 아이들



충북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내부 모습. © 독자 제공

충북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성교육의 일환으로 체험용 ‘정액 체험’을 넣어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급진적 성교육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유아와 초등학생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진적 성교육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학생들에게 각 지역의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서 성교육을 하는가 하면, 언제부턴가 콘돔 씌우기와 질외사정법 등 수십 가지 피임 방법을 교육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챈 학부모들은 몇 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의 외설적 성교육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서울시교

육청(교육감 조희연)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등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충북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성교육의 일환으로 체험용 정액 체험, 수정과정 체험(질 커튼, 천장·정자, 난자) 등을 수업 내용에 넣어 논란이 됐다. 또 센터 내부에 비치된 교구는 ‘웃 위 애무’ ‘웃 속 애무’ ‘거품키스’ ‘딱대과자 뽀뽀’ ‘성관계’ ‘가슴 만지기’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또 자위하는 그림, 옷을 벗기는 그림, 옷 위로 성기를 만지려 하는 그림, 옷 사이로 손을 넣는 그림,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그려진 그림 등이 버젓이 전시돼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아동학대에 속할 위험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정의한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 시도’ 등이 ‘성학대’에 포함된다. 김신의 기자

세기총,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 갖는다

‘오로지 힘쓸 일’ 주제로 10월 4~18일 2주간 국내외서

준 목사(준비위원장), 김동근 장로(공동준비위원장),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참석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이하 세기총)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기념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세기총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교대회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대회장)를 비롯해 증경 대표회장 황의

‘오로지 힘쓸 일’(사도행전 6:4)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기총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국내(더케이호텔,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도약센터, 기독교 성지)는 물론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열릴 계획이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세기총의 국내 임원 및 회원들을 비롯해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유럽한인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과 세기총 국외 100개 지회 지회장·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여의도순복음교회 女교역자 처우 개선 조치 단행

15년 이상 근무자에 기관장 급 대우 고참 여교역자 목사안수 절차 밝기로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여(女)교역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회는 15년 이상 근무한 여교역자일 경우 기관장 급 대우를 하는 한편, 고참 여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총회와 논의해 8~12주 정도의 목회연구원 특별과정을 이수한 뒤 내년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방침이다.

또한 교회는 12일 대규모 교역자 인사를

단행하고 이장균 부목사 후임에 윤광현 목사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장균 목사는 최명우 목사가 순복음강남교회 담임을 사임함에 따라 이 교회의 정식 청빙을 받아 후임으로 부임하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기존 목회·신학 담당 김호성 부목사에게 국제신학연구원 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한편 부원장 제도를 신설해 김형건 목사를 발령했다. 또 기하성 총회 사무국장에는 박래광 목사를 파견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이날 교역자 인사 발표에 앞서 “올해를 목회 원년으로 생각하고 다시 감격과 감사의 마음가짐을 갖겠다”면서 “이를 위해 기도과 말씀이라는 두 개의 기본에 무엇보다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전경.

되었다”면서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이 영적인 집을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부흥과 미래를 창조하는 사명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통합 임원회 “수습안 이행돼 명성교회 분쟁 종결”

교회 측 소송대리인들 사실확인 요청에 답변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임원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이 (총회가)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원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의 교회 측 소송대리인들의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지난 임원회 결의를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들의)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최종적인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 분쟁 당사자를 화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한 임원회는 “교단 소속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김삼한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지난해 1월 1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 김 목사는 그날 자정께 송구영신예배에서 모습을 보인 뒤, 3일 주일예배에서 강단에 복귀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난 1월 26일 판결했다. 이후 명성교회 측이 항소했고, 곧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통일부가 12일, '탈북선원 강제복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김정은 초청하려 귀순자 인권 포기했던 건가?”

통일부, '탈북선원 강제복송 사건' 당시 사진 공개

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복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복송을 거부하는 듯한 선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던 문 정부 측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선원 강제복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복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송환 당시인 그해 11월 7일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 JSA) 관계자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탈북선원들은 송환 전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지만 결국 복송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지만,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사진들로 인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두 눈이 가려진 채 판문점에 도착한 한 선원은 안대가 벗겨진 후 괴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전해진다. 이 선원은 비명을 지르며 자해했다고도 한다.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도 실제 그런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원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에 넘겨지기까지 12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온 통일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12일 해당 사진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집행지원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복송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복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 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강제복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돌고 있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실”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2022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북선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제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유튜브: "탈북선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AMU)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O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학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학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연락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美 공립학교 87% “코로나, 학생들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새로운 연구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공립학교에서 결석과 팬데믹 및 원격 수업 조정에 대한 심각한 행동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의 부정적 행동이 늘었다.

전국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는 6일 스쿨펄스패널(School Pulse Panel)의 일부로 진행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팬데믹이 K-12 학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 데이터는 5월 10일부터 24일 사이에 846개 공립학교에서 수집됐다.

조사 결과, 공립학교의 87%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1-2022학년도 학생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공립학교의 83%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학생들의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동의했다. 또 56%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비행이 증가했다고, 49%는 교실 밖의 난폭함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48%는 선생님이나 직원들을 존경하지 않는 행동이 증가했다고, 42%는 교실 안에서 금지된 전자기기 사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이 같은 비행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

의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효과라고 했다.

학교 측이 전염병의 여파로 간주하는 또 다른 문제는 결석의 증가다. 결석의 증가를 보고한 학교는 전체의 75%였고, 학생 빈곤율이 낮은 학교와 시골 학교는 만성 결석이

각각 73%와 71% 증가했다고 전했다.

콜로라도대학교의 불대 사범대학에 소속된 국립교육정책센터의 싱크탱크 책임자인 케빈 웰너(Kevin Welner)는 최근 성명에서 “이 조사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학교와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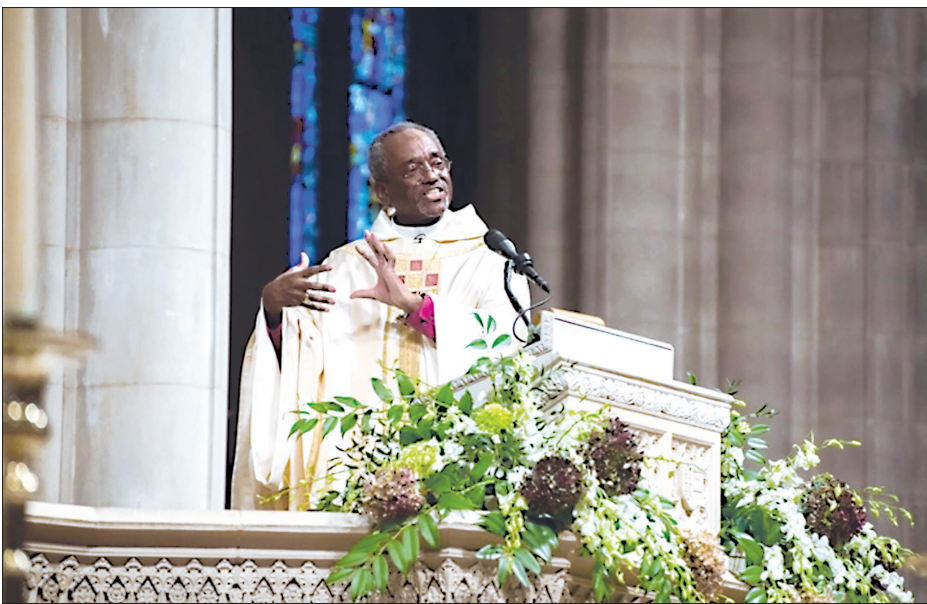
그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사들의 결석 증가에서 자격을 갖춘 대체 교사를 찾는 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사회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행동 문제가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지도자들의 도움 요청으로 이어지는 매우 일관된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4월 연구에 따르면, 심대 10명 중 4명 이상이 대유행 기간 동안 슬픔이나 절망을 느꼈고, 5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고려했다.

이 연구는 “온라인 학습이 대면 접촉을 대체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전반적으로 37% 이상의 학생들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휴교 기간 동안 친구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학생의 약 52%가 “지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휴교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친밀감을 유지한 학생은 35.4%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 성공회, ‘낙태 금지 주에서 2024년 총회 금지’ 결의안 거부



2015년 11월 1일 컬럼비아 특별구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열린 의장주교 취임식에서, 미국 성공회 최초의 흑인 미국인 의장주교인 마이클 커리(Michael Curry)가 설교하고 있다. ©워싱턴 국립 대성당

미국 성공회가 낙태를 금지한 켄터키주에서 2024년 교단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거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미국 성공회는 지난 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80차 총회에서 총대의 원 표결 찬성 377 대 반대 408로 이 결의안(D054)을 무효화시켰다.

결의안은 2024년 교단에 “81차 총회 장소를 생식 건강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 관리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약속하는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2024년 총회 예정지인 켄터키주(루이빌)는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다.

최근 켄터키주의 낙태 시술 업체 두 곳은 낙태 규제 법안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법 시행은 현재 보류

중이다.

이날 결의안을 두고 총대 의원들 간에 1시간가량의 격론이 펼쳐졌다. 성공회뉴스서비스(ENS)에 따르면, 총회지 이전을 지지한 마리아 곤살레스(올림피아 교구) 주교는 “임신했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식 건강 관리, 생명에 필수적인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총회에 오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반면, 켄터키 주교회의 대표인 바바라 메리 주교는 총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사건에서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후 낙태금지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미국 내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는 폐기되었고, 낙태 시행 여부는 각 주마다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판결 당일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낙태권 폐기 결정에 축하한 반면, 마이클 커리의장 주교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015년 흑인 최초로 성공회 교단 수장에 임명된 바 있다.

커리 주교는 당시 트위터에 “이(대법원 결정)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나는 성직자로 서품을 받은 지 40년이 넘었고,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자로 섬겼다. 이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은 우리 국가의 중추적인 날이며 많은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 두려움과 상처를 잘 안다”면서 “교회로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간 이 결정의 영향을 체감할 이들과 함께 설 것”이라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년간 많은 보수 교회들이 가입한 ‘북미 성공회’(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 ACNA)는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폴리 비치 북미 성공회 대주교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미국에서 낙태를 종식시킨 것은 아니지만, 낙태로 인해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며 “이 제한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비치 대주교는 “북미 성공회는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환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또한 “낙태 경험으로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의 길을 계속 가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美 복음주의자 절반 미만 “성경 문자 그대로 믿어”

성서적 문자주의(biblical literalism)는 오랫동안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지배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지만, 갤럽이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들과 거듭난 기독교인들 중 절반 미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나 거듭난 사람 중 40%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실제 말씀’으로 생각했다. 51%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여겼다.

일반적으로 모든 미국 성인 중 20%만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했다. 갤럽에 따르면, 이는 역사상 최저치다. 2017년 갤럽이 미국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응답자 가운데 24%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 미국인의 29%는 성경이 ‘인간이 기록한 우화, 전설, 역사 및 도덕적 교훈’의 모음이라고 대답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퓨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2019년 전체 미국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종교적 헌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남침례교인의 약 61%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미국 성인 전체(31%)와 다른 복음주의 개신교인(53%) 사이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넘어선 수치다.

갤럽은 “2017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의 성경에 대한 믿음은 더 종교적인 사람들과 정규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다”라며 “하지만 이 그룹에서도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믿는 비율은 50% 미만”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라이프웨이 “전도 안 할수록 선해야 천국 간다는 믿음 커”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가장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의 8가지 특성’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 구원에 대해 신학적 근거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전하는 데 편안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라이프웨이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전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3%인 데 반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에 달했다.

그러나 전도에 ‘전혀 또는 거의 적극적이지 않은’ 기독교인과 ‘다소 때는 매우 적극적’인 기독교인의 비율은 대략 50 대 50으로 나뉘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통계학자 다니엘 프라이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전도에 전혀 적

극적이지 않은 대부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낮으며, 3명 중 1명(33%)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전도와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전도에 ‘거의 적극적이지 않은’ 기독교인은 46%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한 데 반해, 전도에 ‘매우 적극적’인 기독교인은 76%가 이에 동의했다.

또 전도에 ‘전혀 활동적이지 않은’ 기독교인은 그들이 천국을 가는지에 대해 ‘누구도 모른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는 “구원은 전도를 노력하게 하는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영적 안녕을 위해 같은 고뇌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에서 전도하는 기독교인을 예측할 수 있는 상위 두 가지 특성에는 ‘신앙을 일상생



©Pixabay

활에 연결하는 것’과 ‘천국에 대한 성경적 믿음’이 꼽혔다.

프라이스는 “실제로 전도를 ‘전혀(38%)’ 또는 ‘거의 하지 않는(38%)’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한

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또 그는 “개인적 전도 외에도, ‘책임을 포용’하고 ‘전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데 있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도를 전혀 하지 않는 기독교인(51%)은 ‘복음을 나눌 때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프라이스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가 복음 전도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전도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두려움, 불안함, 무관심 같은 다른 요소들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Baeksong.kr

이순희목사 2022/08 해외사역 일정안내

8/1(월) - 8/3(수) (주강사:이순희목사)



미주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수양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 (Fresh Start for Recovery!)

미주성결교회 교역자회 회장-김성식목사

이순희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수양관 관장
기독교 생활영성연구원 원장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서울신학대학원 Th.D 선교학
서울신학대학원 Th.M 선교학
서울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M.Div

도서 <복음과 영적전쟁>, <복음과 내적치유>
<영혼을 살리는 찬양> 1,2 저자



8/5(금) - 8/14(주일) (10일간, 저녁 집회)

15차 LA 백송교회 성령컨퍼런스

저녁 7:30 ~ 설교:이순희목사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674 7966

LA 백송교회
김성식목사

성령컨퍼런스는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회복의 예비**로 깊은 영성훈련에 돌입하는 집회입니다.

8/22(월) - 8/25(목) (4일간, 저녁 집회)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성령컨퍼런스

저녁 7:30 ~ 설교:이순희목사

#15-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 문의 647-637-4013

잠재력의 무한대로 빛을 받아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 독 교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245 6616

담임목사 김성식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송배기도모임 (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절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hurch.com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파주)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성상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름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생애 활개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25 수요일성경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더)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 설교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of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월-토)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새들백교회 장로들 “후임 담임목사의 혐의, 말끔히 해소돼”



릭 워렌 목사 부부가 후임 앤디 우드 목사 부부와 함께한 모습. ©새들백교회

미국 새들백교회 지도자들은 릭 워렌 목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앤디 우드 목사에게 제기된 학대 혐의가 말끔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샌 조스에 위치한 에코교회(Echo Church) 전 담임 앤디 우드(Andy Wood) 목사가 새들백교회 담임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에코교회 전 직원들은 우드 목사가 목회하던 당시 교회 문화가 건강하지 않았으며 우려를 나타냈고, 최소한 1명 이상의 직원이 우드 목사가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드 목사가 자신이 이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시애틀의 마스힐교회 설립자인 마크 드리스콜(Mark Driscoll)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드 목사와 에코교회, 새들백교회는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1일 새들백교회 장로들은 약 2만 명의 교인들에게 메일을 보내 “기독교 연구단체인 밴더블로이먼(Vanderbloemen)의 후속 조사에 따라 우드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가 깨끗해졌다”고 밝혔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밴더블로이먼 팀은 에코교회 이전 직원들, 봉사자들, 현재 직원들과 인터뷰하며 앤디 목사와의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과정 이후, 앤디 목사의 리더십 아래 어떤 체계적인 학대의 패턴이나 학대를 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교회 관계자는 밴더블로이먼의 보고서는 대중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새들백교회 장로들이 우드 목사를 지지하기 위해 두 번째 발표한 것으로, 새들백교회는 오는 9월 우드 목사를 신임 목사로 세우고 새롭게 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워렌 목사는 9월 초 은퇴할 예정이다.

성명은 에코교회의 문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망과 상처는 학대와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공정한 마음으로 행동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종류의 상처, 학대, 흑사, 중독, 기타 해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주는 새들백교회 12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장로들은 “우리는 이상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목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깨어진 세계에는 항상 갈등, 의견 불일치, 실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의 회복과 화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회가 미들브룩 굿스피드(Middlebrook Goodspeed)라는 별도의 업체를 고용해 밴더블로이먼의 조사를

강제된 기자 데이비드 예레미야 “미국인 평균 13.6시간 미디어 소비...플러그 뽑을 때”

미국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터닝 포인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예레미야(David Jeremiah) 목사가 미국 성인이 하루 절반 이상을 미디어에 소비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에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 새도우마운틴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인 그는 14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당신의 삶에서 (미디어) 영향력의 영역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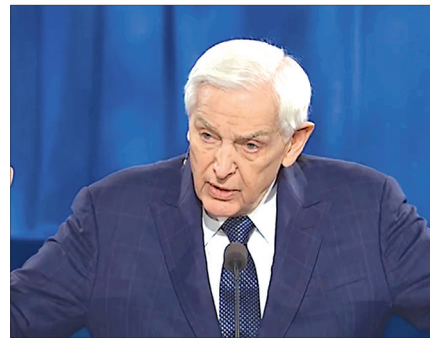
예레미야는 칼럼에서 “미국 성인(18세 이상)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전통적인 미디어(TV, 라디오, 인쇄물)와 디지털 미디어(웹 사이트, 스트리밍, 영화, 음악 및 트위터, 팟캐스트 등)를 소비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숫자는 13.6시간”이라며 “기독교인이라도 세속 미디어에 비해 신앙에 기반한 미디어를 덜 소비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직장인과 소매점에서 음악, 라디오 또는 TV 등의 미디어를 듣는지 생각해 보라. 이로 인해 일을 하거나, 쇼핑 중에도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미디어가 떠드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 소비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거대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었다.

예레미야는 “미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자는 하루 58분(연간 325시간),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하루 53분(연간 297시간)을 콘텐츠를 보는 데 쓴다”면서 “이러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팔로우(follow)하는 사람과 조직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김우진 기자



데이비드 예레미야 목사 ©새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 유튜브 영상

그는 자신이 “미디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신, “의식 없이 하루 종일 미디어를 흡수하며 좋고 나쁨을 걸러내지 않는” 소비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매일 어떤 종류의 미디어를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를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며 “기억하라. 데이터는 들어가고 나온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전했다.

예레미야는 또 기독교인들이 일주일간 자신이 사용한 미디어의 종류와 영향에 대해 목록을 써 볼 것을 추천했다.

끝으로 “만일 그 매체와 영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도록 인도한다면, 계속 오게 하라. 그러나 불안정한 감정,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일으킨다면 이제는 플러그를 뽑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김우진 기자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61

“남미의 부흥을 바라면서”

필자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며 가깝게 지내는 친구(K 목사)가 있다. 한 교회의 협동 사역 목사로 교회와 장자 부서를 맡고 있다. 필자가 멕시코 선교사로 있을 때 개인 후원을 해주었다. 늘 마음이 선교지를 향하여 있고 열방의 선교에 힘쓰고 있다. 그런 그분에게 좋은 선교 비전의 동역자들이 생겼다. 처음엔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운동을 즐기던 모임이었는데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K 목사의 영향을 조금씩 받다가 그 모임이 선교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그 모임의 일원 중에서 한 분이 온두라스 선교지를 다녀온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남미에는 전 나라에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다. 온두라스도 오래전부터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많은 현지인을 전도하여 여러 곳에 교회 예배당을 지어 주고 그 교회들을 지원하며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선교사님들이 양육하는 제자들이 현지 교회를 개척하여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예배당 건립이 필요한 곳들이 생기면 미주나 한국의 교회들에게 후원 광고를 하여 그중에 어느 교회가 건축 선교 후원을 정하면 예배당을 지어 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그 모임의 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우리도 미력하지만, 헌금을 모아 일 년에 한 교회 예배당만이라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제안을 했고, 결의하게 되었다.

그들이 정한 내용은 회원이 10명이나 한 달에 후원비 100불씩 내서 매달 1천 불을 모으면 1년에 1만 2천 불이 되는데 그것으로 예배당 건립이 필요한 교회를 현지 선교사에게 추천받아 한 해에 한 교회씩 예배당을 건립하는데 후원하자고 결의했다. 드디어 올 7월에 1년이 되어 온두라스의 한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후원했다고 하였다.

필자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 회원들의 계획과 성과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앞으로 매년 그 아름다운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발전해 나가기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격려했다.

남미의 나라들은 부흥의 시기이다. 먼저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난 150여 년 동안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남미 교회의 틀을 정립하였고, 그다음으로 한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각 나라로 들어가서 약 40년의 사역기간 동안 남미의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복음 전도사역의 열매를 보기 시작했다. 이제 남미의 교회들이 자립의 단계를 속히 지나 우리와 함께 열방 선교 동역자의 교회로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필자도 멕시코 현지인 신학교 운영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교 출신들의 현지 교회들을 매년 방문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 자립의 단계를 넘어 선교사들을 파송할 만큼 성장한 교회들이 생겨난 것을 보면 가슴이 편다.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 100만 그리스도인 집회를 할 때만 해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 선교사가 없었던 시절, 선교사 파송을 꿈꾸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다. 그 후 40여 년 지난 지금 장기 한국 선교사들이 2만 8천 명 그리고 매년 단기선교팀들이 수천 명씩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로 성장한 것처럼 이제 멕시코와 남미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 부흥의 시기가 온 중남미에 도래하고 있음을 필자는 믿는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남미를 위해 피 흘리고 땀 흘린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선교사의 값진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책을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을 말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문학자요 진정한 개혁사상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여러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들이 당시 개발된 인쇄술을 통해 전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페스트 후 유럽의 인구는 8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 같은 인문학자들과 1만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전 유럽이 인문학 서적을 읽고 종교개혁의 기운을 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토마스 모어와 함께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끌며 종교 개혁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훗날은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가 낳고 루터가 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인문학의 왕자라고 불렸던 에라스무스는 헬라어와 라틴어에 정통하고 방대한 독서로 탁월한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리스도 병사의 단검>, <격언집>, <대화록>, <자유지론> 그리고 <우신예찬>을 저작했습니다. 모든 저서들이 당대 화제의 서적들입니다. 신부가 쓴 책의 논리가 천주교의 입장과 전혀 다른 책입니다.

우신예찬은 에라스무스가 3년 동안의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 토마스 모어의 집에 도착해서 쓴 책입니다. 에라스무스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는 뒤따라오는 자기 서적을 기다리는 무료함을 달래면서 한 주 만에 완성한 책입니다. 이태리에서 목격한 3년 동안 교황과 추기경 등의 부조리를 보면서 느낀 점을 단숨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우신예찬은 중세적 질서와 종교적 허위의식을 조롱하며 그 부조리를 폭로합니다. 당시 기독교 부조리를 까발리고 조롱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13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시절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주로 기독교인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책은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입니다.

우신예찬은 풍자소설입니다. 풍자는 웃으며 지적하고 까발리는 유쾌한 폭로입니다. 로마시대에 시작된 풍자문학이 르네상스에서 꽃을 피웠고, 우신예찬이 꽃 중의 꽃입니다. 우신예찬은 모리아라는 여신의 입을 통해 시원하고 통쾌하게 세상을 풍자합니다. 모리아(Moria)는 스스로 신들과 인간들을 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겁게 해주는 어리석은 신, 우신(鬼神)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신예찬에서 우신은 어리석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다양합니다. 우선 그냥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똑똑한 척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신이 주로 공격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한 어리석음 즉 예수님 정신을 말합니다.

우신예찬은 당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 즉 미신적 신앙, 형식과 절차에 얽매인 제도적 신앙 그리고 돈과 권력을 탐닉하는 탐욕적 신앙을 지적합니다. 우신예찬은 그리스도의 철학, 예수정신을 보여줍니다. 교회 체제나 교권이나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천주교 신부였던 에라스무스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정의감, 저항정신이 돋보입니다.

우신은 자신을 아버지 ‘부유’와 어머니 ‘청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신의 유모는 ‘만취’와 ‘무지’입니다. 우신의 하인들은 ‘자아도취’ ‘아부’ ‘태만’ ‘환락’ ‘경술’ ‘음란 호색’이며, 우신의 머슴은 ‘광란 축제’와 ‘인사불성’입니다. 우신은 이들을 통해 세상만사를 다스리고 복종케 합니다.

우신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기에 존재하고 어리석기에 세상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인생을 조롱합니다. 다음은 잘난체하고 똑똑한 척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바보들을 조롱합니다. 귀족들, 노름꾼들, 성인 숭배자들, 8품사에 매달리는 문법학자들, 등등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똑똑한 바보들입니다.

우신은 신학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스킨라 신학자들입니다. 당시 스킨라 신학자들

은 괴상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바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신의 조작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신은 교권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은 예수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예수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교황이라고 조롱합니다. 수도원을 지키는 수도사들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매듭의 수나 허리띠의 색깔에 규칙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느라 예수님 가르침에 소홀합니다.

청빈, 기도, 눈물 그리고 고행에 몰두해야 할 교황들은 재물과 영광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고 금전을 부지런히 모으느라 너무 바쁩니다. 악한 군주들을 가르치고 저항해야 할 추기경들이 오히려 장군이 되어 싸움을 주도합니다. 주교(Episcopos)는 이름 뜻(돌보는 자)대로 양 떼를 보살피야 하는데 잘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신이 고발하는 어리석은 교회 모습입니다.

교황은 사도들이 담담했던 돌봄과 긍휼의 사역은 추기경에게 맡기고, 추기경들은 주교들에게 이양하고, 주교들은 또 사제들에게 이양합니다. 사제들은 은밀하게 이득을 취하느라 그 일은 탁발수도사들에게 이양합니다. 탁발수도사들은 이를 양털 깎는 목자들에게 이양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신의 조작입니다. 여하간 우신의 손에 놀아나는 세상은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을 통해서 거룩한 기독교의 어리석음을 소개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바보 영성이 세상을 살리고 천국을 연다고 가르칩니다.

우신예찬은 카톨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타락한 천주교를 보고 부글부글 끓던 유럽이 이 책으로 종교개혁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우리 자화상을 발견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22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온캠퍼스, 라이브 ZOOM, 녹화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수강 가능

수강신청기간 | 8.1-8.5
개강일 | 8.29

본교 학위과정

- | 학사과정(신학/사회복지학/글로벌경영학/가정상담학)
- | 석사과정(교역학/교역학 원목과정/상담심리학/선교학/결혼과 가족 치료)
- | 박사과정(선교학/선교학철학)
- | *교육학 학사, 전문코칭학 석사 과정(2022년 가을학기 개설 예정)

본교의 비전과 특징

-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 이론과 실제, 전공 분야와 현장 경험을 통합하는 역량을 갖춘 교수진
- |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 | 현역 및 재향 군인 학자금 및 재정 지원
-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 |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특히 목사, 선교사 장학금 지원)

유학생 환영
1-20 발행



Tel. 562.926.1023
Fax. 562.926.1025
www.ptsa.edu

본교 인가기관



ats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3차 8.15 광복 77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HOUSTON 2022]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HOUSTON 2022]

"오직, 복음통일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행 1:6~8)
Only, the answer is Gospel Reunification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19일(금)
- 장 소 : 휴스턴한빛장로교회(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 문 의 : 주최측: 425-775-7477, 주관교회: (713) 643-4348
- 대 상 : 한어/영어권 성도들과 청소년 2세 모두
- 참가안내 : 점심/저녁 개최 교회 제공, 인근숙박정보등 상세 안내는 공식홈페이지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C



(연합) 정성진 목사 기록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통일연합기도) 이윤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각성) 오창희 목사 원불교회담임



(탈북구제사업)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북한농업실무)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열 감독 '철가방우수씨'



(탈북청년 정착대안) 박대현 형제 통일의정거리 '우리온'대표



(북한현실/문화) 강석완 교수 동아대학교



(북한지하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주관교회) 정영락 목사 한빛장로교회



(통일전략/북한통치이해) 김요한 목사 유니티미션



(탈북증언과 통일비전1) 배영호 전도사 장로회신학대학원



(북에서 남으로)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탈북증언과 통일비전2) 안성민 전도사 침례교신학대학교



(통일청년세대) 조평세 박사 '바로서다' 이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굿뉴스보다더큰목마름

이외에 탈북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을 예정이며, 강의는 covid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차 대회 집회일정표

	15일(월) 새벽기도회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09:00~10:20 전체주제 오전강의(1)		탈북신학생 간증(1): 침례신(2)	조평세 박사 "링컨의 노예 해방과 한반도 통일"	강석진 목사 "근현대사속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일 비전"	윤학열 감독 메타버스! "영상을 통한 복음통일"
10:30~11:50 오전강의(2)		탈북신학생 간증(2): 강신/성결신	특별발언대: 영어권과 한.미관계	김요한 목사 "북한상황하에서 본성경적통일선교 신학과 전략"	미주통일연합 기도회활동소개: 시카고 & D.C
12:00~14:50	오찬 다함께 휴식				
15:00~16:20 오후강의(3)	환영/ 등록	탈북신학생 간증(3): 강신/홍신	박대현 대표 "잘 정착된 북한 청년들이 대안일 수 있다"	김학송 목사 "북한농업은 물이 답이다"	김연영 선생 "10대는 북에서, 20대는 남에서"
16:30~17:00		교단별 격려시간	분야별월삼 & Q n A	분야별월삼 & Q n A	분야별월삼 & Q n A
17:10~18:50	만찬 다함께				
19:00~21:00 찬양과 저녁집회	개회집회: 임현수목사 "오직 복음통일 만이 답입니다" (행 1:6-8)	저녁집회: 고명진목사 "오직 복음으로" (막 1:1)	저녁집회: 오창희목사 "이 시대의 다시열을 찾습니다" (단 9:1-6, 19)	저녁집회: 강동완교수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겔 34:16)	폐회집회: 통일공모대상/ 연합기도회

2022년 복음통일상 공모전

세계의 최고 상으로 노벨상이 있다. 이시대 최고의 뉴스가 될 남북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상이 필요하다. 비록 작지만 통일의 각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아래처럼 3가지 분야의 우수작품들을 이번 3차대회를 통해서 공모하여 시상하려고 한다.

주제: "내일 통일이 된다면", "왜 복음통일인가", "통일의 세계사적 의미", "복음통일만이 답이다"

상금: 아래 각 분야별로 각 \$1000이며 대회 마지막 날(19일 금) 참석자들의 투표로 발표함.

- 1) 복음통일 포스터: 크기는 자유이며 통일의 희망과 통일된 감동을 그리면 된다.
- 2) 복음통일 기도문: A4 용지 2/3 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감동의 기도문
- 3) 복음통일 동영상(2~3분내): 본인의 연설 혹은 통일각성 제작동영상(형식은 자유)

위의 직접 창작한 그림과 글과 동영상을 아래 연락처로 2022년 8월 3일(소인날짜-한국), 13일(소인날짜-미국)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주소: (한국)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2 수정타운(12동-301호) 받는이: 기드온선교회

(미국) 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받는사람: Houston Hanbit (3RD Award)

문의: gbmwusa@gideonbrothers.org / gbmwkorea@naver.com (기도문과 동영상 이메일로 접수)

· 상금 기부 환영: 위의 상금에 본인의 이름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수여 가능하오니 복음통일의 열정과 비전을 담은 분들(교회들)의 귀한 참여를 바랍니다.

· 위 대회 진행을 위한 기부현금도 받습니다. (한국) 신한은행 100-032-117976(기드온동족선교회), (미국) 체크: 16825 48th Ave. #345, Lynnwood, WA 98037 Pay Order to: GBMW / (해외모두) PayPal: @swp2019 (모든 후원현금은 세금공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기드온동족선교회 / 한빛장로교회 협력: 휴스턴교협 협찬: 미주기독일보 YouTube LIVESTREAM

강준민 칼럼

고난의 수레를 축복의 수레로 바꾸시는 하나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이민자로서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민자로서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민자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민자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자로서 꿈을 성취하고 이민자로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성경적 형통의 비

밀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꿈입니다. 그는 두 번에 걸쳐 꿈을 꾸게 됩니다(창 37:6-10). 그가 꾸는 꿈속에서 그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정치가가 되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창 50:20).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꿈과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꿈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늘 동경하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꿈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꿈을 갖게 되면 어려운 시련을 이겨냅니다. 꿈은 환경을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꿈을 갖게 되면 유혹을 물리칩니다. 꿈을 갖게 되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꿈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과업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꿈꾸는 요셉이 직면했던 것은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입니다. 형제들은 꿈꾸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를 이소말 사람들에겐 이 집에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앞날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평안히 지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창 39:2).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고난의 수레는 총리가 타는 버금 수레로 바뀝니다(창 41:43). 그가 입었던 노예의 옷이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으로 바뀝니다(창 41:42).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없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신비로운 은총의 도구입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섭리적 만남을 통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는 몇 번의 섭리적 만남을 통해 반전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이소말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소말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나중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간수장을 만납니다.

또한 술말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말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바로 왕을 소개해 줍니다. 요셉의 섭리적 만남은 한결같이 낯선 만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긍정적 태도를 통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요셉에게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변화에 적응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창 42:18)고 말합니다. 그의 긍정적 태도와 지혜의 근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성경적 형통의 지혜를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디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성경적 형통을 경험하십시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3-①

MZ세대가 메타버스로 빠지는 이유?

MZ 세대의 특징은 시대적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3.0》 저자 홍성용은 최근 메타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이후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과 2010년대 모바일 혁명 이후를 책임질 새로운 사회 혁명으로 메타버스가 자리매김하는 전 지구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말했던 가상 세계의 대체어가 바로 메타버스다. 수십 년간 발전해온 디지털 기술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달라졌다. 그동안 발전해온 디지털 기술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곧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잘 알듯,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거울 세계: 실제 세계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디지털 세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어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을 들 수 있습니다.

2) 라이프로그: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말합니다.

3) 증강현실: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켓몬고, MS 홀로렌즈가 있습니다.

4) 가상 세계: 컴퓨터 기반으로 구현된 3D 공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입니다.

MZ세대가 메타버스 세계로 상당수 들어갑니다. 《로블록스》하나에 접속하는 인원만 2021년 4,730만 명에 달합니다. 전년 2020년 대비 31% 인구입니다. 국내 PC방 유희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 League of Legends)》가 글로벌 단위로 하루 평균 2,700만 명의 접속자를 기록하는데요. PC 게임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놓치지 않는 게임보다, 《로블록스》에 2배 정도 다음 세대가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상 공간에 몰려들까요?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즐기 위해서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 메타버스》 책에서 박기현, 김상균

공자는 메타버스 안에서 MZ세대가 소통할 때, 피로감이 덜하고, 더 소통이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게더타운은 아바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용자들 혹은 정해진 일정 공간(방) 안에 함께 있는 사용자들만 서로 마이크와 카메라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으로 공간 오디오(spatial audio) 기술이라 불린다. 반대로 상대방과 멀어진다거나, 특정 방을 벗어나면 이 연결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게더타운에는 다양한 집단 대화에 필요한 기능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는 데 피로감이나 불편이 아주 낮다. 줌에서와 달리, 누군가와 일대일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그 아바타 근처로 이동하기만 하면 간단히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대화를 그만하고자 할 때는 간단히 물러나 거리를 두기만 하면 되니 아주 편하다.”

둘째, 가상 세계 안에서 가상 경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 중 가상 공간에서 역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페토 크리에이터 렌지는 월 수익

1,5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 활동하는 MZ세대 중 연봉 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2021년 2월 외신에서는 갓 스무 살이 된 미국인 청년 ‘이든 가브론스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든 가브론스키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번 돈은 4만 9천 달러(약 5,50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한 달에 5,5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기업 1년 연봉 정도고요. 1년에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버는 겁니다. 그것도 스무 살 청년이요. (계속)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보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진유철 칼럼

너 자신을 알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그리스 로마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는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중심을 텔포이라고 선포했고 그곳에 아폴로 신이 사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텔포이 신전의 문 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적인 인간의 삶은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만 잘살 수 있는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뿌리를 옮겨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가깝게 와 닿는 문제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화상을 바르게 찾는 것 아닙니까?

시인 최승자씨는 '자화상'이란 시에서 어두운 의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어머니나 어둠이예요.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풀밭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 긴 몸뚱아리의 슬픔이예요."

윤동주 시인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연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렇듯 인간은 결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비로소 자신에 대한 진실한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존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1권 제1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진실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목상하고 그 목상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때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온갖 풍조와 유행과 이슈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므로 행복하라고 외

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올바른 정체성과 자화상을 깨닫고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걸작품이며 예수님의 피 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먼저 깨달으면 매일 매일 목적과 사명이 이끄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의 종교등부 연합 수련회와 성경 암송, 한기다말과 감사노트 등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화상을 깨닫게 하는 복된 일임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친일 행각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조선교회가 앞 다투어 친일 행각을 벌리던 때, 감리교회도 1941년 3월에는 국민총력조선기독교감리회 연맹 주최로 시국대응 신도대회를 열어, 혁신요강 실천과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해 10월에는 3부 연회를 해산하고 일본 감리교회 교단 규칙에 따른 새로운 교단 규칙을 만들어 '조선기독교감리교단'을 조직하였다. 이어 그 해 10월, 경성 교구에서는 예배당의 종 25개를 떼어 바쳤고, 국민총력 기독교 조선감리교단 연맹이 사회에서 종교 보급 5개 실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 실천케 하였다.

1. 전시 대응 교역자 강습회를 별기(別)여(如)히 10월 28일부터 4일간 제1회로 개최하고 제2회에 약 100명을 더하여 제3회에는 여자 교역자를 모으기로 함. 2. 각 교구 대표자 [충청도] 부여 신궁 어조영(御照影)봉사의 건. 3. 각 교회당 우(又)는 부속 공지를 해 부락, 읍, 면, 정(町)에 제공하여 비상시국에 적응한 집회 급피난소 우(又)는 특별 작업장으로 사용케 하며 교우들이 자진 협력하고 편의를 도모할 것. 4. 각 교회 소유의 철문과 철책 등을 헌납할 것. 5. 지방별로 동계 성서강의회(사경회) 전후에 전시 대응 강연 후는 좌담회를 개최하되 지방 당국자와 잘 연락하고 부흥강사급 모든 순서는 미리 교단 본부에 교섭하여 내락을 득한 후에 실행할 것. 등이었다.

1942년 2월 당시 감리교단 통리 정춘수(鄭春洙) 목사가 각 교구장에게 보낸 '황군 위문 및 철물 헌납의 건'이란 공한에서 예배당의 철문, 철책을 포함하여 예배당의 종도 성전(聖戰) 완수를 위해 헌납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1944년 3월에 교단 상임위원회를 열고 '애국기 헌납'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결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결의 사항> 1. 애국기(愛國機) 헌납의 건 - 현하 시국 가열한 전선에 비행기를 한 대라도 많이 보내야 할 이 때에 본 교단은 조속히 다음과 같이 애국기를 헌납한다. 1) 애국기(감리교단 호) 3대, 2) 애국기 헌납 자금 예산액 21만 원, 3) 이 자금은 신도의 헌금 전액과 본 교단 소속 교회의 병합에 의한 폐지 교회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의 일부로서 이에 충당한다.

또한 감리교회는 1944년 9월 상동예배당에 '황도문화관(皇道文化館)'이라는 간

판을 걸고 갈홍기 목사를 관장으로 임명하고 교단 내 목사들을 강제로 모아 일본정신과 문화를 강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목사들을 신관(神官)의 인솔로 한강으로 끌려가 신도(神道)의 재계(再)의식인 청정(淸淨: 신도의 의식에서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식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목욕 또는 물을 몸에 끼얹어 부정을 청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머리에 일장기가 그려진 두건을 쓰고 남산까지 뛰어가서 신궁에 참배하였다.

일제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에도 제재를 가하여 어떤 찬송가는 일체 못 부르게 하였고, 어떤 찬송가에서는 몇 절을 못 부르게 먹으로 지우게 하는 짓을 자행하였다. 사도신경 중에서도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부분은 신도(神道)의 창조설화와 위배되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일왕의 영원한 계속사상을 파괴한다고 하여 금지시켰다.

예배 5분 전에는 일왕의 사진이나 동방으로 요배를 하였고, 전물용사들을 위로하는 묵념, 출정 장병의 무운장구를 위한 기원,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 후 예배를 시작하였다. 1943년부터는 주일 아침 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다. 예배당 안에서 일어강습, 근로 작업을 강제하였으며, 징발한 예배당은 군수품 공장으로 전용하였다. 또한 예배당 안에 황

국신민서사, 황도실천 등을 게시하게 하였다.

1943년 여름에 경성부(京城府) 근로동원과에서 당시 경성 교구장 김영주 목사(새문안교회)에게 충남 부여(扶餘) 신궁 건설에 근로봉사대를 보내라는 지시를 하자 경성 교구 소속 목사, 신자 50여 명이 신궁 건설 정지 작업에 동원되었다. 천주교회와 성공회, 성결교, 구세단, 안식교 등 군소 교단들도 친일 부역을 하는 데는 예외가 아니었다. 1942년 조선에 징병제 실시가 공포되자 성결교회, 구세단 등의 군소 교단들은 앞 다투어 '징병제실시축하강연회,' '징병제도실시감사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한심스런 작태였는지 곧 드러나게 되었으니, 일제는 결국 기독교회 파괴공작을 노골화하여 이들 작은 교단을 해체하고 말았다.

어두웠던 시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교회가 그 어둠의 세력과 함께 어둠 속에서 부창부수(夫唱婦隨)를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한심한 세태였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값어치를 나타내는 법인데, 빛이 꺼져버렸으니,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참 교회나 교인은 어두운 시대에 그 빛을 밝게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앞서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8:00 PM 토요일 09:00 AM~8:00 PM

Tel: 213-739-102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이 '교회와 예배가 필요없다'고 말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은 락다운(이동금지명령)과 섯다운(폐쇄 명령)으로 모든 비필수적 모임과 행사, 심지어 사업장 운영 등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건강 외적인 영역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필수적(essential)'인 일들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런 정책의 전환은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문제는 국가가 교회를 '필수적'이지 않다고 규정하고, 모이기를 폐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참 교회는 스스로 '필수적'이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악한 세상을 진리로 인도하는 기둥, 빛과 소금이다.

무엇보다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 교회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값없이 은혜로 사신 바 된 교회가 스스로 '필수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 방침에 순응했다. 교회가 필수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인의 건강과 안전, 이웃 사랑이란 이유에서였다.

그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대놓고 교회가 비필수적이라고 말할 적 없지만, 그 전제를 가지고 요구된 방침을 따르면서 교회는 점점 비필수적인 삶의 영역으로 성도들과 이웃에게 각인되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행되면서 문을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로 늘고, 살아남은 교회 중에서도 저지 않은 수의 성도가 돌아오지 않는 현상을 겪는 교회가 많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를 '필수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콜린 헨슨과 조너선 리먼은 각각 미국 복음연합(TGC) 콘텐츠 부문 부대표 및 편집장, 그리고 9Marks의 에디토리얼 디렉터이다. 가장 활발하게 복음의 가치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특

별히 참 교회의 재발견을 추구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에 관여하는 책임자라 할 수 있다.

특히 리먼은 9Marks에서 나온 책을 직접 저술하기도 했는데, <교회의 권징>(부흥과 개혁사, 2016), <교회의 교인 자격>(부흥과 개혁사, 2016) 등이 국내 소개되었다. 도서 출판 디사이플에서 2021년 나온 교회 기초 시리즈, <교회의 권징>, <주의 만찬>, <침례(세례)>, <회중의 권위> 시리즈 편집자이기도 하다.

<교회의 재발견>의 부제는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필수적(essential)인가'로서, 교회가 최근에 겪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제시하려는 의도가 묻어난다.

저자가 생각한 주요 독자는 먼저 교회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누가 교회인지, 모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설교와 가르침은 왜 중요한지, 등록할 필요는 무엇이며 권징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는지, 성도 사랑의 실천 과제는 무엇이며 외부인(이웃) 사랑의 과제는 무엇인지,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을 교회에게 재발견하도록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권면한다.

참고로 2, 3, 5, 6, 9장(9장 중 5장)은 외부 기고문과 책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이지만(디사이플링, 9Marks 등), 국내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마크 데버와 9Marks의 문헌과 가르침이 국내 많이 보급되어 교회의 재발견이란 주제가 익숙함을 넘어 뻔한 내용으로, 구체적이기보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교회의 재발견>에서 두 저자는 우리가 겪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안팎에서 제기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만큼 실질한 책이고 또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강력하게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다.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정체성의 전환이 구원이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속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사교활동 중 하나로 취급된다.

하나의 종교 생활로 삶의 아주 적은 부분만 할애하며 사는 교인이 많다. 교회의 재발견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택하여 불러 모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으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 가운데 처소를 두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 교회는 필수적이다. 하나님께 교회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교회가 모이는 것은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며, 교회에 주어진 모든 명령, 주께서 지상대위 임령을 통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를 서게 하고 허물게 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교회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재발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

독자는 이 책 <교회의 재발견>을 통해 그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교회를 처음 사랑과 행위로 돌이키셔서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촛대와 등불이 되게 하시길 간구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교회의 재발견

콜린 헨슨, 조너선 리먼
개혁된실천사 | 200쪽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곤경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아프지 않을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세우신 그분의 몸이다.

[7월, 작가들의 말말말③]

◆찰스 스펀전(저자), 오수현(옮긴이) -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여도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천국의 상속자인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분노의 자녀로 사는 이들이



많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과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사랑의 온기가 있는 경건한 애정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생활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보석을 모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위조될 수 있다. 가짜와 진짜 보석이 놀랄 만큼 비슷한 것처럼 위조된 은혜는 성령의 사역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하지만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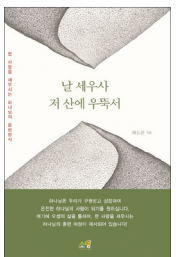
영원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소유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회복해야 하고 두려워 한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에 가득해야 한다.

◆하도균 -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

인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그 해결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필요합니다. 해답은 하나이지만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기도 하였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어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만나주셨고,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 그리고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지만, 각자에게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율 보험료/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이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년간 사고발생시 연차유리액 반환까지 담보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 찜밥, 오방떡 / 솔방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생명의 파종,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The Sower, 1888)은 고흐의 농촌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고흐는 농촌그림에 곱물하던 뉘엔 시절에 삽질하는 사람, 벌초하는 사람, 낫질하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 나뭇단을 나르는 사람을 주로 그렸는데 이런 장면과 함께 농부들의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낸 모티브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이다.

얀 헐스커(Jan Hulsker)에 의하면, 빈센트의 첫 작품이 바로 밀레(Jean-François Millet)의 <씨 뿌리는 사람>(1850)의 이미지를 모사한 것이었다고 한다.

초기에 반 고흐가 그린 작품은 밀레의 그림과 약간 다르다. 밀레의 그림이 주인공의 눌러쓴 모자 너머로 고단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비해 빈센트의 인물은 어떤 표정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밀레 그림과는 달리 빈센트의 그림에서는 인물 동세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등 습작 정도로 그친다. 그 후로도 반 고흐는 이 테마를 수십 점이나 제작하는 등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고흐는 아를 시절 <씨뿌리는 사람>(1888)에 등장하는 농부를 자신과 동일화하여 표현한 했는데, 이에 대해 드보라 실버만(Devora Silverman)은 이것을 종교개혁의 신앙, 즉 노동은 은총의 산물이자 힘든 노동자들의 성화를 꾀하려는 복음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반 고흐는 매일 자신들의 손으로 대지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뉘엔의 농부들과 노동으로 직물을 짜서 옷을 만드는 직물공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직물을 짜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듯 자신도 고된 창작활동을 그들과 견주면서 농부와 직조공들을 화폭에 옮겼다. 나아가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일을 밭일을 하는 농부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는데, 가령 "우리가 해야 하고 지속해야 할 연구가 남아있지. ... 그것은 더욱 약삭같이 할수록 ... 진짜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이지. ... 요컨대 나는 씨앗이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우리는 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라고 했다.

그는 인상주의자들처럼 야외 사색을 고집하였는데, 그것은 농부가 밭에서 일하듯이 자신도 밖에서 똑같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루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시골농가에서 살아야 한다. 한 여름의 피약벌 아래서도, 겨울에 눈과 서리가 몰아쳐도 농부들이 하루종일 밭에서 일하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푹 트인 야외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이렇듯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농부를 자신과 똑같은 인격체로서 바라보았던 고흐 자신의 인간관을 보여준다.



빈센트 반 고흐, 씨 뿌리는 사람(캔버스에 유채, 1888, 클렐러 뮐러 미술관 소장).

예술작품 제작, 농부들 밭일과 비슷하다 여겨 그리스도 뒤따라 말씀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 고흐의 희망, 씨앗이 성장해 생명 되리란 믿음

고흐의 초기 회화에 등장했던 이 주제는 아를 시절을 지나면서 풍경에 상징적 중요성(emblematic significance)을 부여하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게 된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썼다. "태양이 가득한 작은 밭밭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어렵게 작업을 했다. 그 보람으로 작은 밭밭, 풍경의 습작,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의 소묘를 그렸다. ... 나는 실로 오랫동안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리고자 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무섭다. 밀레(F. Millet)와 레르미트(Leon Augustin Lhermitte)가 후대에 남긴 것이란 색채로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다."

화면을 보면, 한 농부가 밭밭 위를 성큼 성큼 걸어간다. 머뭇거리 없는 걸음걸이에서 그의 자신감을 감지할 수 있다. 뒤로는 해가 저물고 웃자란 밀이 빼곡하다. 밀짚모자를 쓴 농부는 밭 위에 씨앗을 뿌린다. 농부가 선 땅은 메말라 갈라져 있고 한눈에 보아도 척박해 보인다. 개간이 안 된 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과

는 달리, 고흐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한 편지에서는 "별판의 씨 뿌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그림을 성경에 비추어보면, 주인공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임을 나타내 준다. 이는 그가 일전에 런던 토마스 존스 목사가 운영하던 학교에서의 교역자, 보리니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작품을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치우는 장면은 이 주장의 설득력을 실어준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던 그의 이력을 떠올릴 때, 그가 성경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모티브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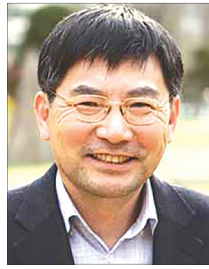
19세기에 농부는 그림의 적절한 주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이 도심의 신사와 숙녀를 즐겨 그리던 때여서, 농부나 익명의 사람들은 모델로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고흐는 농부에게 인격과 위엄을 부여하며 보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가 농부를 단순한 피사체로 바라보지 않고 존엄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그림 후면에는 셋노란 태양이 농부를 환히 비추어준다. 여기서 태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중세 미술의 후광이 각색된 '변장된 후광'으로 등장한다.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씨 뿌리는 사람(복음 전파자)이 오늘날 맡겨진 일에 진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사학자 제임스 로메인(James Romain)은 고흐의 삶이 때로 실망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의 예술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밭에 뿌린 씨앗이 조만간 자라나 생명과 성장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그의 예술을 한층 활기차고 힘차게 만들었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 크롬, 홍화씨유, 달맞이꽃 증자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예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주제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

○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31일(주일)

○ 장소 | **프라미스교회** (허연행목사사무)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집 회	강 사
7/28(목) 저녁 7:30	임현수 목사
7/29(금) 저녁 7:30	임현수 목사
7/30(토) 저녁 7:30	최 혁 목사
7/31(주일) 오후 5:00	최 혁 목사

선교헌금 및 장학금 후원 요청

1. 북한선교 후원금을 받습니다
2. 장학금 후원금을 받습니다
3. 홀리스 및 선교회 후원금을 받습니다
4. 현재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해 후원금을 받습니다



- 보낼곳 : 뉴욕교협 사무실
- 주 소 :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Pay to : "CKC"

강사



임현수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
북한 선교사



최 혁 목사

LA 주안예교회 담임목사
남가주교협 45대회장 역임



강사: **임지윤 목사**

- 어린양개척교회 2세 목사
- RCA 교단 목사
- 유년부 분과 위원장

할렐루야 어린이집회

- 일시: 2022/7/28(목)-/31(주일)
- 장소: 프라미스교회

* 성인집회와
같은 시간



교역자 및 평인도 지도자 세미나

- 일시: 8/1(월) 오전 10시
- 장소: 프라미스교회
- 강사: 최 혁 목사

할렐루야 2022 청소년 복음화대회



2022. 9. 16(금)-17(토)
<장소: 프라미스교회>



셔틀운행

- 장소 | 노던 한양마트 앞
- 시간 | 7/28(목), 29(금), 30(토), 6:00pm, 6:30pm
7/31(주일) 4:00pm, 4:30pm,

주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T. 718.279.1414 / F. 718.278.5838

Email: nyckcg@gmail.com / www.nyckcg.org

총무: 임영건 목사 (631.327.8046)

서기: 김정길 목사 (917.682.4566)



대회장



회장 김희복 목사

준비위원장



이기응 목사

부대회장

부회장 : 이준성 목사

부회장 : 이춘범 장로

이사장 : 김일태